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232

2017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room Anxiety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수 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room Anxiety

201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수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room Anxiety

지도교수 김경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이수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수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남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차희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자 인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사의 글

제 나이 서른에 늦깎이 영어 교육학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상황 속에 갈등과 고민이 항상 뒤따라 다녔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생각되는 이 기간이 이 석사학위논문을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하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끝마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격려하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경자 교수님. 여러 상황에 만능이지 못한 부족한 제자 지도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 애써주셨습니다. 작고 여리시지만 그 누구보다 크게 보이시는 분이였습니다. 교수와 제자로서 거리에서 항상 냉철하고 직관적인 판단으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때로는 교수님의 놀라울 정도로 철두철미하시고 강한 모습을 동경했지만, 이제 저는 그 뒤에 있는 교수님의 따듯한 내면을 만져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대성 신랑님, 내가 대학원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고 당신 있는 발리로 갔네요. 그동안 내가 공부하느라 오고 가는 동안 배려해주고 마음 써준 거에 고마워요. 공부하는 아내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때로는 눈물 맺히기도 했어요. 지금 힘들었던 1, 2년의 시간들이 먼 훗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많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엄마, 아빠. 딸 하나 있는 거 나이 먹고도 철도 안 들고 해서 걱정 많았지요. 그래도 늦깎이 시작한 공부, 이제 드디어 끝이 나네요. 엄마, 나 때 되면 대학원 학기 시작해서 짐 보따리 싸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와주고 신경 쓰느라 고생 많았네요. 딸이 이제 공부 마치고 더 발전되어 아이들 가르치면서 효도 하며 살께요.

이 석사학위논문은 부족하지만, 저의 가족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힘이 드는 시간 속에서도 지나고 보면, 빛나던 순간은 늘 있었고, 그 순간들은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안고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더 빛날 수 있는 날들이 오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목 차 v
표 목 차 vii
논 문 초 록 viii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표 3
1.3 연구 문제 3
Ⅱ. 이론적 배경
2.1 외국어 학습 불안의 정의 4
2.2 외국어 수업 불안 유형 5
2.2.1 Horwitz의 외국어 수업 불안 요소 5
2.2.2 Spielberger의 불안 요소 6
2.2.3 Talyor의 표명불안 8
2.3 외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8
2.3.1 영어 수업 불안과 영어 성취도 8
2.3.2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과 학업 성취도 9
2.3.3 영어 외 외국어 수업 불안과 L2 성취도의 관계 11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13
3.2 연구도구 15
3.2.1 외국어 수업 불안 설문지 15
3.2.2 영어 학업 성취도 조사 15
3.2.3 참여자 배경조사 설문지 16
3.3 연구자료 수집 방법 16
3.4 연구자료 분석 방법 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 요인.....18
4.2 영어 수업 불안 요인과 영어 학업 성취도의 관계.....25
Ⅴ. 결론 및 후속 연구 제언
5.1 연구 요약.....27
5.2 교육적 함의.....28
5.3 연구의 제한점.....29
5.4 후속 연구 제언.....29

참고문헌.....30
부록 1 외국어 수업 불안 설문지.....35
부록 2 참여자 배경 조사 설문지.....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 인적 사항 검사.....14
<표 2> 영어 수업 시 의사소통 불안 측정.....19
<표 3> 시험 불안 요인에 대한 분석.....21
<표 4>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 통계 분석.....23
<표 5> 불안 요인과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room Anxiety

Suji Lee
Advisor: Kyung Ja Kim,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room anxiety in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class. The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w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nglish classroom anxiety factors and English achievemen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95 Korean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of 1st grade and the 2nd grad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background questions and the modified 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The English scores on the school final test were used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Three anxiety sources were employed: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est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there was low English classroom anxiety. The result showed that in descending order of three anxiety sources,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est anxiety in sequence.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r=.789) between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xiety and English learners' achievement. The main cause of the result is that the participants' age was low as 13, 14 and they were doing communication language teaching with native English teachers every week. And they didn't have a test because of enforcing their exam-free semester. This study also has implications: 1) teacher needs to use facilitative anxiety positively and reduces debilitative anxiety properly; and 2) school has to make effective environment for English study in the classroom and develop useful program and materials to reduce students' Engilsh classroom anxie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나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발표되어 왔다(Chastain, 1975; Gardner & Lambert, 1972; Oller & Perkins, 1978; Scovel, 1978). 정의적 요인이란 교육목표 분류체계에서 인간의 정서 및 감정을 밑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Krathwohl, 2002).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며 학자에 따라서 규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Brown(1987)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attitude),감각(feeling), 감정(emotion), 정서(mood) 등이 정의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Anderson(2001)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7개의 정의적 특성을 불안감, 태도, 흥미, 가치, 선호, 귀인, 그리고 학업 적 자기존중이라고 하였다. 조윤경(2010)은 흥미, 모험 시도, 불안감, 태도 및 동기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어학에서 분류하는 일반적인 정의적 요인은 불안감(anxiety), 자기 방어심(inhibition), 동기(motivation), 자아존중심(self-esteem), 외향성(extroversion) 및 내향성(introversion), 감정이입(empathy) 등이 있다(Brown, 2007).

여러 정의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이 외국어 학습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임을 강조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MacIntyre & Gardner, 1991a; Sparks & Ganschow, 1991; Young, 1991). 그만큼 외국어 학습에서 불안은 외국어 습득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에서 불안이 단연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불안이 낮다고 하여 좋은 학습 성취만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불안은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다(Chastain, 1975).

Wiggins와 Brustad(1996)는 불안은 경쟁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학습의 효과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증진시키는 성공의 열쇠라고 보았다. 반면 Jones와 Swain(1995)은 학습자가 너무 많은 불안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경우 학습 성취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서 불안을 감소시켜 학습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되어 왔다(Horwitz, Horwitz, & Cope, 1986; MacIntyre & Gardner, 1991b; Young, 1991). 외국어 학습 불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학습동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이효웅, 1994; Larsen & Long, 1991; Omaggio , 1993). 이처럼 정의적 요인 중 불안이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써의 연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불안의 모든 측면이 외국에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자 개인의 특성, 학습단계 그리고 교수자의 교수방법과 같은 환경적인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금 한국 중학생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은 영어 수업에서 어떠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교육에 어떠한 제언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여 대상을 중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많고, 최근 연구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불안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불안과 듣기 능력의 관계, 불안과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며, 점차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네 기능인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전반적인 영역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에, 외국어 학습 노출 환경에 의해 느끼는 불안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최근 한국 EFL 중학생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불안의 요인은 무엇이며, 영어 수업 불안 요인들이 학습자의 영어 학업 성취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중학생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수업 중 느끼는 불안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영어 수업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영어 수업 불안이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의 중학생 영어 수업 시간에 불안요인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외국어 수업 불안 설문으로 검증된 Horwitz 외(1986)의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불안 측정 설문지, 2) 참여자 배경 설문지와 학교 1학기 내신 영어 점수를 활용하여 영어 수업에서 고려해야할 불안 요인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3 연구 문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중학생 EFL 학습자가 전반적인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불안은 어떠한가?

둘째, 영어 학습자가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불안과 영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2.1 외국어 학습 불안의 정의

외국어 학습 불안이란 L2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빈번히 느끼는 정서적 불안감이다. Scovel(1978)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불안이란 단순한 단일 구조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내적, 외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집합적 정의적 상태라고 하였다. Brown(2000)은 불안감이 너무 높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불안이 외국어 학습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영향도 끼친다고 본다.

외국어 학습과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촉진적 불안(facilitative anxiety)과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적 불안감(debilitative anxiety)으로 나눌 수 있다(Alpert & Haber, 1960; Scovel, 1978).

MacIntyre와 Gardner(1994a)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업이 간단할 때는 불안이 촉진적 불안이 되고 과업이 너무 어려우면 의사소통에 해가 되는 방해적 불안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어 학습의 초기에는 학습자들이 상태 불안을 경험하나 점차적으로 수행과 불안을 연결 짓게 된다고 보았다. 외국어 학습 불안이 증가하면 학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반면 불안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쌓이고 반복적인 학습 경험이 증가하면 불안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aito와 Samimy(1996)는 외국어 학습 불안이 생리적, 심리 언어적 행동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어 수업 불안 시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호흡에 변화가 오거나, 손에 땀이 나거나, 입안에 침이 마르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가슴이 뛰거나, 맥박이나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Chastain, 197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외국어 수업 불안 유형

2.2.1 Horwitz의 외국어 수업 불안 요소

Horwitz 외(1986)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가 갖게 되는 불안이란 신체 자율 신경계의 자극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염려, 긴장, 초조, 및 걱정 등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불안의 공통된 증상으로는 숨 가쁨, 떨림 및 수면 장애 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시에 느끼는 특별한 양상의 언어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Horwitz 외(1986)는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가 느끼게 되는 불안을 상황특정불안(situation-specific anxiety)이라 주장하고 불안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1) 의사소통 불안

Horwitz 외(1986)는 의사소통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anxiety)을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언어 능력 부족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의사소통시의 불안으로 보았다. 특히 외국어 학습 불안은 다른 언어 불안과는 다르며,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외국어 말하기 기능과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외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어 학습자들은 학습 시 말하기 과정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도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 시험 불안

시험 불안(test anxiety)은 시험으로 인한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 또는 학습 평가 결과에 따르는 염려를 나타낸다. 학습자가 시험을 볼 때 적절치 못한 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사용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예견된 시험점수나 실패에 대한 걱정에 기인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Horwitz 외(1986)는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을 시험 불안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불안으로 보았다. 학생들이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이나 시험 불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문혜리(2008)는 그에 따른 이유로 시험 불안은 시험을 치루는 상황에서만 제한되어 있지만,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은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의 바람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불안이다. 즉, 개인이 타인에 의해서 받는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불안이다. 또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연관된 불안을 말한다. 타인 앞에서 말하게 되거나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바로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의 원인이 된다. Young,(1990)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자의 지나친 자아 존중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2.2 Spielberger의 불안 요소

1) 상태불안 (state anxiety)

Spielberger(1975)에 의하면 상태불안은 어떤 특정한 강도로 발생하는 상황적 불안을 말한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긴장이나 두려움의 감정적 상태를 말하며, 상황의 유지나 변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화 가능한 불안 상태를 의미한다. 상태불안은 주관적인 상황 하에서 개인의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많이 높아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자아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낮아지게 되는 성향을 보인다. MacIntyre와 Gardner(1991c)는 상태불안은 특성불안의 특성과 상황 특수적인 불안의 특성을 결합시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어떠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입력되어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 특성불안 (trait anxiety)

Spielberger(1975)에 의하면 특성불안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잠재적인 성향이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불안을 말하며, 개인에게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불안 경향이다.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불안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의 불안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간주될 때의 불안을 나타낸다. 특성 불안이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보다 특정 상황 속에서 더욱이 쉽게 불안에 빠지며, 높고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불안하지 않은데 외국인을 만나거나 시험을 볼 때면 불안을 느끼는 경우나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학업 성취도가 시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3) 상황 특수적 불안 (situation-specific anxiety)

상황 특수적 불안은 외국어 학습 시 특정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불안을 말한다. MacIntyre와 Gardner(1994b)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볼 때, 학습자가 시험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시험 불안이며, 영어 수업을 하게 될 때 느끼는 불안은 수업 불안, 외국어를 학습하고 나서 말하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겪는 불안은 언어 불안이라고 주장하였다. Horwitz(1986)는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겪는 언어 불안은 상황 특수적 불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3 Taylor의 표명불안

1950년대에 학자들의 불안에 관한 연구들은 1953년에 발표된 Taylor의 표명불안 척도(Manifest Anxiety Scale, 1953)를 사용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Taylor는 학습자의 타고난 특성을 이용하여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이를 만들었다. 표명불안 척도는 총 50문항이며 1문항 당 1점씩 배정되어 총점 50점 중에 점수가 19점보다 높을 시 학습자는 선천적으로 높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척도는 단지 학습자의 특성불안만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2.3 외국어 불안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외국어 학습에서 불안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러 정의적 요인의 영향만큼 다양한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국어 불안과 학업성취도는 서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Aida, 1994; Ganschow & Sparks, 1996; Horwitz 외, 1986; MacIntyre & Gardner, 1994a, 1994b).

2.3.1 영어 수업 불안과 영어 성취도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학습 불안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시킨 Horwitz 외(1986)는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 FLCAS를 개발함으로써, Scovel(1978) 이후 약 10년 만에 불안과 성취도 관계 연구에 관한 이론적 틀을 확립시켰다. 그들은 FLCAS의 계발을 통하여 학습자의 불안양상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불안과 학업 성취도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염규을(1998)은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 학습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외국어 학습 불안 수준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자 언어의 이해보다는 구두 언어에서 더 큰 성취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영어 학습자들이 시험을 볼 때 영어독해 보다는 영어 말하기를 하는 상황이나 이해할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고 나타냈다. 또한 외국어 학습 불안과 영어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불안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Oh(1990)는 영어 읽기 능력과 외국어 학습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1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어 학습 불안은 영어 읽기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외국어 학습 불안이 높은 학생일수록 영어 문장 읽기 책략과 사전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책략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외국어 학습 불안이 영어 읽기 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더해서 불안의 요인 중에 시험 불안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달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3.2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과 영어 성취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수업과 불안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다(이효웅, 1999; 2001). 이효웅(1999)은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영어 수업 불안은 학습자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습 환경이나 교사의 잘못된 교과 과정, 학습 과제의 어려운 난이도가 학생들의 불안 심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효웅(2001)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수업 불안과 듣기 성취도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듣기 불안이 커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영어 듣기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언어 입력 특성, 듣기 처리과정, 교수법, 학습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듣기 시험과의 상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가지 불안 요인 모두 듣기 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신동로, 권영선, 노상근(2001)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의적 요인 중 불안과 언어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불안 요인들이 외국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읽기 불안은 외국어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읽기 성적과 외국어 불안 역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서 언어 불안과 읽기 불안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은경(2006)은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영어 읽기 불안이 높을수록 읽기 능력은 떨어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어 읽기 불안이 높을수록 단어, 문법에 집중하는 상향식 읽기 전략을 사용하고, 영어 읽기 불안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틀에 집중하는 하향식 읽기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적 요인 중 자신감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불안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영어 읽기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단어나 문법 능력에 치중에 영어를 해석하고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학습 과정에서 읽기 불안이 주된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영어 읽기 과정에 방해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 박창숙(201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배경적 요인에 따른 학업 성취도와 영어 읽기와 영어 학습 불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영어 자신감과 영어 독해, 말하기 능력 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외국에 학습에 있어서 수업 불안이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외국어 학습 불안과 학업 성취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학습 불안 중에서도 학습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과 연관된 정서적 학습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외국어 학습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학습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3 영어 외 외국어 수업 불안과 L2 성취도의 관계

Horwitz 외(1986)는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영향을 연구 분석한 결과, 외국어 불안과 외국어 학업 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불안의 주된 원인은 외국어 말하기와 듣기과정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hillips(1992)와 Aida(1994)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이외의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 불안이 외국어 학업 성취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게다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은 말하기와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능력인 쓰기와 어휘 능력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MacIntyre와 Gardner(1989)는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프랑스어, 수학과 영어 수업과정에서 학습 불안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프랑스어 수업에서 느끼는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국어 학습 불안은 프랑스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불안은 수학과 영어 수업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나타냈다. 따라서 불안은 제 2언어학습이나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모국어와 관련된 학습이나 다른 과목과의 관련성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MacIntyre와 Gardner(1991a, 1991c)는 프랑스어의 초급 쓰기 과정과 중급 어휘 암기능력 과정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외국어 불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말하기와 듣기능력 이외에 쓰기와 어휘 암기능력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불안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Horwitz 외(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Phillips(1992) 역시 Horwitz 외(1986)의 외국어 학습 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프랑스어를 제 2언어로 공부 중인 중급단계의 44명 학습자로 정하여, 프랑스어 학습 성취도와 외국어 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외국어 학습자 개개인과의 면접을 통해서 측정된 언어 불안에 관한 자료가 연구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외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외국어 학습 불안은 학업 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외국어 학습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는 낮게 나타나는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어 말하기 과정의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전의 다른 연구결과와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국어 학습 불안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거나,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Aida(1994)는 일본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 불안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에서 일본어를 학습 하고 있는 96명의 대학생들이였다. 이 연구에서는 Horwitz 외(1986)가 구분한 세 가지의 불안 요소 가운데 의사소통 불안과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이 중요한 불안 요인임을 나타냈지만, 시험 불안 요인은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는 FLCAS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난 선행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결과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아래 <표 1>은 연구대상의 인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중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며, 1학년 2개 반 50명(51.6%)과 2학년 2개 반 45명(48.4%), 총 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총 3번의 영어 교과 수업을 받았다. 한 번은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교사와 수업하고 두 번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 일주일에 1시간 미만(34.7%), 2~3시간(26.3%), 6시간(18.9%)의 영어 공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설 학원(41.1%), 학교 영어 교사(28.4%), 스스로 학습(18.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스로 영어 학습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을 듣기(40.0%)로 답했다. 반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는 말하기(36.8%), 영문법(26.3%), 쓰기(15.8%), 듣기(12.6%), 읽기(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95명중 15명(15.8%)만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답하였다. 영어 학습을 위해 사설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50.5%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다. 앞으로 영어 학습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51.6%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이 95명중 81명(85.3%)으로 높은 기대 심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형태는 원어민과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은 영어교과서에 기반한 대화가 중심이었다. 짝을 지어 연습하는 활동과 소규모 그룹 활동의 말하기 방식으로 수업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영어교사와의 수업은 영어교과서의 문법, 본문, 듣기 중심이었다. 교과서 학습 후 교사가 준비한 참고자료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자료들을 활용하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습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질문은 개별적인 질문 보다는 그룹 활동을 통해 받게 되는 질문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표 1

연구대상 인적 사항 검사

항목	구분	응답자 수
연구대상	중학교 1학년	50 (51.6%)
	중학교 2학년	45 (48.4%)
1주일 평균 영어 학습 시간	1시간미만	33 (34.7%)
	3시간	25 (26.3%)
	6시간	18 (18.9%)
	9시간	12 (12.6%)
	12시간 이상	7 (7.4%)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 실력	매우 열등하다	9 (9.5%)
	좋지 않다	24 (34.7%)
	중간이다	31 (32.6%)
	좋은 편이다	21 (22.1%)
	아주 좋다	10 (10.5%)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재	5 (5.3%)
	사설학원	39 (41.1%)
	학교선생님	27 (28.4%)
	스스로 공부	18 (18.9%)
	기타	6 (6.3%)
영어 학습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	읽기	28 (29.5%)
	쓰기	10 (10.5%)
	듣기	38 (40.0%)
	말하기	13 (13.7%)
	영문법	6 (6.3%)
영어 학습 선호도	하고 싶다	49 (51.6%)
	하기 싫다	46 (48.4%)
사교육 실시	그렇다	48 (50.5%)
	아니다	47 (49.5%)
합계		9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 연구도구

영어 수업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설문의 설문지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2.1 외국어 수업 불안 설문조사지

불안 측정 설문지는 총 33 문항으로 FLCAS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부록 1에 설문 문항을 나열하였다. Horwitz 외(1986)는 외국어 수업 시 나타나는 학습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불안감, 시험 불안감, 그리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시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설문 응답을 한 학생이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은 5단계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5단계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각각 수량화 하였다.

3.2.2 영어 학업 성취도 측정

이 연구에서는 영어 수업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학업 성취도는 참여자들의 2016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영어 점수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는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를 말한다.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로써 영어 기말고사 점수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 사려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3 학습자 배경조사 설문지

학습자 개개인의 영어 학습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 배경을 조사하였다. 부록 2에 15문항을 바탕으로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영어 학습자의 연령과 자가 판단을 통한 영어 학습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발달 영역, 중요시 여기는 학습 영역도 조사하였다. 학습자 배경 설문지에는 학생들의 성별,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수준, 영어로 대화하는 상대의 유무, 선호하는 영어 수업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 유무나 사교육 실행 유무,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의지와 기대치를 알아보고자 양자 택일형 항목도 포함하였다

3.3 연구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중학교에 각 영어 담당교과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에게 설문을 의뢰하여 허락 하에 2016년 9월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실시되었다. 1학년 2개 반, 2학년 2개 반 총 95명의 학생들의 참여 동의를 얻어 연구자는 설문 조사와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점수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응답 시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대하여 자기보고(self-reported)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4 연구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으로 영어 수업 불안 요인 및 참여자 인적 사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2) 신뢰도(reliability) 분석으로 영어 수업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3)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영어 수업 불안 요인과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결과 및 논의

4.1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수업 불안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가 보여주는 결과는 아래와 같다. 3가지 불안 요인인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 등 3가지 요인으로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의사소통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영어 수업 시 의사소통 불안 측정

문항	1	2	3	4	5	*M*	*SD*
3. 나는 영어 수업에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는 것이 떨리지 않는다.	16	16	26	18	19	3.08	1.36
4. 나는 영어 수업에 발표하는 데 자신감을 느낀다.	19	20	29	20	7	2.75	1.21
5. 나는 영어 수업에 수업과 관계 없는 생각을 하곤 한다.	8	16	37	23	11	3.14	1.10
9. 영어 수업에 자원해서 대답 하는 것이 창피하다.	25	24	28	13	5	2.46	1.17
11. 나는 가끔씩 영어 수업에 빠지고 싶다.	17	16	28	21	13	2.97	1.29
12. 나는 영어 수업에 잘 준비돼 있더라도 걱정이 된다.	26	20	29	18	2	2.47	1.15
13. 나는 영어 수업에 준비 없이 말해야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25	18	31	13	8	2.59	1.25
18. 영어 수업이 시작될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13	18	42	13	9	2.86	1.12
23. 나는 다른 수업보다 영어 시간에 더 긴장되고 떨린다.	35	28	21	7	4	2.13	1.12
26. 나는 영어 수업에 말할 때 결코 확신이 들지 않는다.	27	18	32	13	5	2.48	1.20
28. 나는 왜 몇몇 사람들이 영어에 그렇게 당황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24	28	29	12	2	2.37	1.07
33. 나는 영어 원어민 교사 주변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20	23	40	8	4	2.51	1.05
						2.78	.6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불안은 평균 2.78, 표준편차 .68 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3 번 “나는 영어 수업에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는 것이 떨리지 않는다” 가 평균 3.08 로 높게 나타났다. 95 명 중 37 명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의사소통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사려 된다. 문항 18 번 “영어 수업이 시작될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도 평균 2.86 으로 ‘보통이다’ 에 42 명,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에 22 명이 답하면서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영어 수업에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23 번 “나는 다른 수업보다 영어 시간에 더 긴장되고 떨린다” 에는 63 명이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응답 결과들을 봤을 때, 참여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불안감이 낮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영어 수업 의사소통 불안감이 낮게 나온 데에는 일단 참여자의 연령이 14, 15 세로 중학생 학습자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설문자의 반 이상인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원어민 수업과의 수업이 첫 시행되는 단계라 수월해하고 큰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교육과 연결되는 1 학년 영어 수업 단계도 학생들이 그리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다. 정규 학교 편성 과정에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영어 원어민 수업이 도입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인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가 시행된 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 오랫동안 영어권 국가 원어민과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많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시험 불안 요인에 대한 분석

문항	1	2	3	4	5	*M*	*SD*
6. 나는 영어 수업 중에 보는 시험이 편안하다.	9	17	46	16	7	2.95	1.01
8. 나는 영어 점수가 낮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	23	10	21	26	15	3.00	1.41
14. 영어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 정리가 안 된다.	30	29	25	6	5	2.23	1.12
16. 영어 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 내가 뒤쳐질까봐 걱정이 된다.	34	23	20	13	5	2.28	1.23
21. 영어 수업동안 배운 내용을 바로 시험 보는 것이 두렵다.	27	16	25	17	10	2.65	1.34
22. 나는 영어 수업에 실패하는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27	19	28	15	6	2.52	1.24
24. 나는 내 영어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	36	20	19	12	8	2.33	1.32
25. 나는 영어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다.	31	30	25	7	2	2.15	1.03
31. 나는 영어를 말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많은 규칙들에 부담을 느낀다.	27	22	26	10	10	2.52	1.30
						2.53	.84

<표 3> 은 연구 참여자들의 시험 불안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참여자가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시험 불안은 평균 2.53, 표준편차 .84 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시험 불안 요인 역시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문항 6 번 “나는 영어 수업 중에 보는 시험이 편안하다” 에 응답한 참여자 95 명 중 46 명이 ‘보통이다’ , 33 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영어 수업 중 시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문항 8 번 “나는 영어 점수가 낮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 에서는 ‘보통이다’ 21 명, ‘그렇다’ 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매우 그렇다’에 41명이 응답한 걸로 보아 다른 문항에서 나타내는 참여자들의 영어 수업 시험 불안은 낮지만, 그에 따라 나오는 시험 결과인 영어 점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항 25번 “나는 영어 시험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다”을 보면 평균 2.15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참여자가 61명으로 대체적인 참여자들은 영어 시험에 대한 혼란 역시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 불안 요인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중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시험 불안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현재 중학교 1, 2학년 정규 과정에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영향이 크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년 2학기 중 1학기는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별도의 몇몇 수행 평가 시험을 제외하고는 영어 수업만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영어 시험에 대한 긴장과 압박을 가지지 않게 된 걸로 사려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참여자들은 항상 영어 수업 중 원어민 교사와의 즉각적인 시험에는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시험에서 나오는 결과와 점수에는 긴장감과 불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분석된 영어 수업 중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과도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에서 원어민과의 CLT 수업 보다는 한국인 교사와의 과업 중심의 문법 중심 수업의 노출 시간이 더 많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 등 미리 학습된 영어 시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영어 수업 중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려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 통계 분석

문항	1	2	3	4	5	*M*	*SD*
1. 나는 영어 수업 동안 실수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12	17	31	23	12	3.06	1.20
2. 나는 영어 수업 동안 지적될까 봐 떨린다.	38	16	26	11	4	2.23	1.22
7. 나는 항상 다른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를 더 잘 한다고 느낀다.	16	20	37	13	9	2.78	1.17
10. 영어 수업에 선생님이 고쳐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한다.	27	19	33	14	2	2.42	1.12
15. 나는 영어 수업에 예습을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38	22	21	11	3	2.15	1.17
17. 영어 교사가 내가 실수한 것을 고치는 것이 두렵다.	37	26	24	6	2	2.05	1.05
19. 나는 영어 교사의 말을 다 알아 듣지 못할 때 긴장이 된다.	29	19	32	10	5	2.40	1.18
20. 내가 영어로 말할 때 친구들이 비웃을 까봐 걱정이 된다.	34	19	20	14	8	2.40	1.33
27.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 한다고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19	25	22	18	11	2.76	1.29
29. 나는 영어 수업에 내가 아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매우 불안하다.	21	18	32	20	4	2.66	1.16
30. 나는 영어 수업을 매우 잘 준비 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14	16	38	15	12	2.95	1.20
32. 나는 영어 교사가 내가 미리 준비 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 떨린다.	21	22	32	13	7	2.61	1.19
						2.69	.47

<표 4> 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수업 중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이다. 영어 수업 불안 요인 중 세 번째인 타인에 대한 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적 평가 불안에는 평균 2.69, 표준편차 .47 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1 번 “나는 영어 수업 동안 실수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을 살펴보면, 평균 3.06 으로 ‘보통이다’ 31 명,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에 35 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참여자들은 영어 수업 중에 실수를 저질러도 다른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불안은 적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문항 15 번 “나는 영어 수업에 예습을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은 평균 2.15 로 ‘그렇지 않다’ 22 명, ‘전혀 그렇지 않다’ 38 명으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응답한 걸로 보아, 참여자들은 영어 수업에 자신이 예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를 보태자면, 문항 30 번 “나는 영어 수업을 매우 잘 준비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은 평균 2.95 로 ‘보통이다’ 38 명, ‘그렇다’ 15 명, ‘매우 그렇다’ 12 명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평가 불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요인을 배경을 보자면, 참여자들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CLT 영어 수업에 노출되어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수업을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영어 수업 중 말하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기를 통한 영어 수업 노출 환경이 빈번하지 않았다면 타인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나 평가 받는 상황을 자주 겪지 않아 불안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영어 수업에서 지속적인 말하기 상황과 평가를 받는 상황들을 겪어온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의 연령도 관계가 있다. 학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는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직 중학교 1, 2 학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크게 타인에 대한 평가 불안을 크게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학교 연령에 따른 영어 수업 난이도 수준도 그리 높지 않는 것도 관계가 있다. 기본적인 일상 소통 회화와 어휘들을 학습하고 평가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영어 수업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낮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들로 사려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영어 수업 불안 요인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 95명의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점수를 조사한 결과, 범위는 0점에서 100점까지 평균 77.66(표준편차=24.99)이 산출되었다.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의 3가지 외국어 학습 불안 요인들과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

불안 요인과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영어 성취도	(1)	(2)
의사소통 불안 (1)	-.474**		
시험 불안 (2)	-.274**	.789**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 (3)	-.317**	·.671**	.736**

**p<.01

<표 5> 에서는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불안까지 3가지 불안 요인과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는 의사소통 불안(r=-.474, p=.001), 시험 불안(r=-.274, p=.007),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r=-.317, p=.002)과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박창숙, 2014; 신동로 외 2인, 2001; 이효웅, 1999; Horwitz 외, 1986; MacIntyre & Gardner, 1989; Philips, 1992)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외국어 수업 불안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다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영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불안이 영어 성취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박정숙(1996)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역시 영어 수업 불안 요인들은 영어 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이 연구는 불안 요인들이 영어 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영어 수업에서 영어 수업 불안 요인들을 낮추어 영어 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영어 수업 불안 요인들끼리는 상관계수 .671에서 .789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 가지 불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가지 불안도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시험 불안과 의사소통 불안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r=.789, p=.001).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과 시험 불안의 관계(r=.736, p=001), 의사소통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의 관계(r=.73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EFL 학습자 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수업에서 느끼는 불안을 기술 통계 분석하고 영어 수업 불안과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밟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수업 불안을 살펴본 결과, 영어 수업 시 갖게 되는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 정도는 의사소통 불안(M=2.78),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M=2.69), 시험 불안(M=2.53) 순으로 의사소통 불안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영어 수업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평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참여자인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다소 낮은 영어 수업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른 이유로는, 현재 중학교 1, 2학년의 전면적인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있다. 영어 수업 시수를 줄여가고 학년 별 1학기의 시험 평가를 폐지하는 형식으로 참여자들의 영어 수업 불안은 감소 되가는 추세로 판단되어진다.

둘째, 영어 수업 불안 요인들과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영어 학습자의 불안이 높아지면 영어 성취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불안 중에서도 의사소통 불안은 영어 성취도와 상관계수(r=-.474)가 가장 높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로써, 영어 수업 불안이 제거되어야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불안 요인들끼리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 의사소통 불안과 시험 불안과의 상관관계(r=.7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2 교육적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어 수업 불안을 학습자들이 적절히 제어 할 수 있는 영어 교수 학습과 관련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의 영어 수업 불안이 낮긴 했지만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안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로 인해 교사는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킬 수업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여야 한다. 중학교는 다수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므로 학습자간의 학습 편차를 잘 고려하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협동의 영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영어 수업의 일차적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상호 정보 교류라고 본다면,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에 중심을 두고 수업을 이끌어야 하는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프로그램을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강화시키는 동료 교사들 간의 활발한 협동과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둘째, 학습자의 영어 수업 불안 요인과 영어 성취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또 다시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영어 수업 불안을 낮출 것인가에 문제를 던진다. 영어 수업 도입 단계에서 영어 수업 불안이 형성되기 전, 왜 각각의 영어 수업 환경에서 영어 수업 불안이 나타나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교사의 역할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불안 형성 원인을 알아내고 제거되어야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학습 시 학습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학습 또는 평가에서 불안을 갖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불안에는 긍정적인 역학을 하는 촉진적 불안과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해적 불안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영어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는 방해적 불안 요소를 낮추고 촉진적 불안을 적절히 유지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즉,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는 학습 보다는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준에 알맞은 수업 교재와 목표를 부여하고 학습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룹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게다가 수업 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자연스런 동기 유발과 학습자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자발성을 조장하는 학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 하여 다른 성별인 중학교 남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또한 중학생에 편중된 연구대상 연구로써, 초등학생, 고등학생, 성인학습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학기의 기말 영어 점수도 공신력이 있지만, 영어 수업 안에서 좀 더 장기적인 불안의 변화과정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려 된다.

5.4 후속 연구 제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영어 수업 불안 측정 연구가 많았으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집단 간에 비교 연구를 통한 불안 연구가 행해졌으면 한다. 다수의 양적 분석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소수의 연구대상을 통한 질적 후속 연구가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수업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교육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영어 수업의 최대 장애물인 불안, 공포, 자신감 결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 형태는 지엽적인 어휘, 교과서 위주의 제한된 문법 교육에서 탈피하여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언어 상황으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듣고, 다양한 주제나 내용의 컨텐츠들을 경험하며 영어 말하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외국어 교육의 요채가 되어야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 문헌

문혜리. (2008). *원어민과 비원어민 수업자에 의한 수업이 대학생들의 영어말하기 성취도, 불안 및 모험시도에 미치는 효과.*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박정숙. (1996).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언어불안의 역할에 관한 실증 연구. *영어교육, 51,* 91-115.

박창숙. (2014). *학습 불안과 읽기 불안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박덕재, 박성현. (2011).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서울: 박이정출판사.

박현주. (2002). 불안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 10(3),* 171-191.

신동로, 권영선, 노상근 (2001). 외국어 학습에서 일반 언어불안과 독해 불안과의 관계. *교육논총, 21,* 23-43.

염규을. (1998). 외국어 불안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 6*(1), 215-234.

이은경. (2006). *L2 지식, L1 독해력, 읽기 불안이 한국학습자들의 영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이효웅. (1994). 외국어 학습 책략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48,* 51-99.

이효웅. (1999). *영어 학습 태도, 동기 및 책략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이효웅. (2001). 대학생의 영어듣기 책략과 불안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3(1),* 179-203.

조윤경. (2010). 교실에서 학습자 모국어 사용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4(1),* 345-368.

Aida, Y. (1994). Examination of Horwitz, Horwitz, and Copes construct of foreign language anxiety: The case of students of Japanese.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odern language Journal, 78, 155-168.

Alpert, R., & Haber, R. N. (1960). Anxiety in 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1(2),* 207-215

Brown, H. 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 hall.

Brown, H. D. (2007). First language acquisitio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Pearson ESL, 24(2),* 24-51

Chastain, K. (1975). Affective and ability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5*(1), 153-161.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Publisher.

Ganschow, L., & Sparks, R. (1991). A screening instru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problems. *Foreign Language Annals, 24,* 383-397.

Ganschow, L., & Sparks, R. (1996). Anxiety about foreign language learning among high school wome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0*(2), 199-212.

Horwitz, E. K. (1986). Preliminary evidence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foreign language anxiety scale. *TESOL Quarterly, 20,* 559-562.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25-132.

Horwitz, E. K., & Young, D. J. (Eds.). (1991). *Language 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Jones, G., & Swain, A. B. J. (1995). Predispositions to experience debilitative and facilitative anxiety in elite and non-elit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erformers. *The Sport Psychologist, 9,* 202-212.

Krathwohl, D. R. (2002).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Theory into Practice, 41,* Ohio State University.

Landers, D. M. (1980). The arousal-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 77-90.

Larsen, F., & Long, M. H.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New York: Longman.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89). Anxie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2,* 251-275.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1a). Investigating language class anxiety using the focused essay technique. *Modern Language Journal, 75,* 296-304.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1b). Language anxiety: Its relation to other anxieties and top-processing in native and second languages. *Language Learning, 41,* 513-534.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1c). Methods and results in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 anxie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Language Learning, 41,* 85-117.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4a). The effects of induced anxiety on three stages of cognitive processing in computerized vocabulary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1-17.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4b). The subtle effects of language anxiety on cognitive processing in the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44,* 283-305.

Oh, J (199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reading in English as a foreign among Korean universit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Oller, J. W., Jr., & Perkins, K. (1978). Intelligence and language proficiency as variables in affective measures. *Language Learning, 28,* 85-97.

Omaggio, H, A. (1993).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Boston: Heinle & Heinle.

Phillips, E. M. (1992). The effects of language anxiety on student's oral test performance and attitud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6*(1), 14-26.

Saito, Y., & Samimy, K. K. (1996).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language performance: A study of learner anxiety in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level college students of Japanese. *Foreign Language Annals, 29(2),* 239-251.

Scovel, T. (1978). The effect of affect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anxiety research. *Language Learning, 28*(1), 129-142.

Sparks, R., & Ganschow, L. (1991). Foreign language learning difficulties: Affective or native language aptitude differences? *Modern Language Journal, 75,* 3-16

Spielberger, C. D. (1975). Anxiety: State-trait process.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5* (pp. 115-143). Washington, D.C.: Hemisphere.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 Pali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Taylor, Janet A. A. (1953).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8(2),* 285-290.

Wiggins, M. S., & Brustad, R. J. (1996). Perception of anxiety and expectations of performa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 8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71-1074.

Young. D. (1990). An investigation of students perspectives on anxiety and speaking. *Foreign Language Annals. 23*, 539-5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 측정>

다음은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설문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본인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 문항 앞의 빈칸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영어 수업(학습)을 할 때 나는

( ) 1. 나는 영어시간에 실수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 ) 2. 나는 영어시간에 지적될까봐 떨린다.
( ) 3. 나는 영어시간에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떨리지 않는다.
( ) 4. 나는 영어시간에 발표하는 데 자신감을 느낀다.
( ) 5. 나는 영어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곤 한다.
( ) 6. 나는 영어수업 중 보는 시험이 편안하다.
( ) 7. 나는 항상 다른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를 더 잘한다고 느낀다.
( ) 8. 나는 영어점수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 ) 9. 영어시간에 자원해서 대답하는 것이 창피하다.
( ) 10. 나는 영어수업에 선생님이 고쳐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한다.
( ) 11. 나는 가끔씩 영어수업에 빠지고 싶다.
( ) 12. 영어수업에 잘 준비돼 있더라도 걱정이 된다.
( ) 13. 나는 영어시간에 준비 없이 말해야 할 때 마음이 두근거린다.
( ) 14. 영어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 더 정리가 안 된다.
( ) 15. 나는 영어수업에 예습을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 ) 16. 영어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 내가 뒤쳐질까봐 걱정이 된다.
( ) 17. 영어선생님이 내가 실수한 것을 고치는 것이 두렵다.
( ) 18. 영어수업이 시작될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 19. 나는 영어선생님의 말을 다 알아 듣지 못할 때 긴장이 된다.
(　　) 20. 내가 영어로 말할 때 친구들이 비웃을 까 걱정이 된다.
(　　) 21. 영어수업에 배운 내용을 바로 시험 보는 것이 두렵다.
(　　) 22. 나는 영어수업에 실패하는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　　) 23. 나는 다른 수업보다 영어 시간에 더 긴장하고 떨린다.
(　　) 24. 나는 내 영어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
(　　) 25. 나는 영어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다.
(　　) 26. 나는 영어 수업에 말할 때 결코 확신이 들지 않는다.
(　　) 27.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　　) 28. 나는 왜 몇몇 사람들이 영어에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　　) 29. 나는 영어 시간에 내가 아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매우 불안하다.
(　　) 30. 나는 영어 수업을 매우 잘 준비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　　) 31. 나는 영어를 말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많은 규칙들에 부담을 느낀다.
(　　) 32. 나는 영어 선생님이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 떨린다.
(　　) 33. 나는 영어 원어민 교사 주변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수업 불안에 관한 연구 >

인적 사항 검사

아래 문항들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는 해당사항에 √로 표기하세요. 아래 문항들은 인구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도 누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각각의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1. 나의 학년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2. 나는 영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영어를 ( )시간 공부한다.
   1) 1시간미만 2) 3시간 3) 6시간 4) 9시간 5) 12시간 이상

3. 다른 학생들과 비교 했을 때, 나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은:
   1) 아주 좋지 않다 2) 좋지 않다 3) 중간이다 4) 좋은 편이다 5) 아주 좋다

4. 나의 영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 교재 2) 사설학원 3) 학교 선생님 4) 스스로 공부 5) 기타( )

5. 내가 영어 학습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은?
   1) 읽기 2) 쓰기 3) 듣기 4) 말하기 5)영문법

6.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1) 읽기 2) 쓰기 3) 듣기 4) 말하기 5) 영문법

7. 나는 학교 또는 학원 숙제 이외에 다른 영어 책을 공부한다.
   1) 전혀 안 한다 2) 거의 안 한다 3) 가끔 한다 4) 자주 한다 5) 매일 한다

8.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친구가 ( ) 있다.
   1) 전혀 없다 2) 1명 3) 2명 4) 3명 5) 4명이상
9.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그렇다 ( ), 아니다 ( )
10. 나는 영어 학원 또는 과외를 하고 있다. 그렇다 ( ), 아니다 ( )
11. 나는 영어로 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 ), 아니다 ( )
12. 앞으로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그렇다 ( ), 아니다 ( )
13. 학교의 원어민 수업이 내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 ( ), 아니다 ( )
14. 내 영어실력은 노력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 ( ). 아니다 ( )
15. 나의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점수는? ( ) 점

Collection @ chosun